

書評이 서야 할 자리

邊衡尹

서울대 교수·경제학

나는 가끔 書評을 써왔지만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쓴 일은 없다. 그러나 지금와서 되돌아보니, 서평을 쓸 때에는 대체로 책의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한 다음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그 책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끝으로 그 책이 해당 학계나 학문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서를 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때로는, 나아가서 그 책이 우리 사회나 우리 삶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기도 한 것 같다.

이것은 서평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나는 서평도 독자의 편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평은 讚辭를 쓰는 것, 서평자는 찬사를 써주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평은 해당 학계나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名著 내지 良書의 발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저서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이나 우리 삶에 대한 좋은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평은 학문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서평이 꽃을 피울 수 있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비판이나 비평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학문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허용되는 분위기 등의 조성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과연 비판 내지 비평을 기피하거나 찬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분위기, 학문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분위기, 명저나 양서의 저자가 응분의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도리어 '惡書가 양서를 驅逐하는' 분위기 등에서 서평이 제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머리에 떠오른 다음의 말을 들기로 한다. 『만나본 히스는 별로 대단치 않더라』 이 말은 현재는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LSE)'의 교수로 있지만 일본의 이론경제학 및 계량경제학을 대표하는 한 일본인이 1950년대에 그 당시 옥스포드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면서 「價値와 資本」(1939)이라는 名著를 낸 당대 이론경제학의 대가 히스(J. R. Hicks)를 만나 토론을 하면서 받은 인상이, 그의 1939년의 저서 등을 통해서 받은 인상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한 말이다. 히스는 뒤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결코 히스를 비난하고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가 강조하려 했던 것은 영국 학계에서는 한 사람의 위대함보다도 학적 분위기 자체가 명저를 발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사실 그는 히스의 그 명저 등이 그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여 유익한 비평을 해준 여러 학자와의 합작품을 알고 그런 학적 분위기를 일본에서도 하루 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물론 이런 학적 분위기는 영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타 구미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현재는 일본에서도 그러하다. 또 학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저서이든 논문이든 필자는 草稿를 완성한 후에는 의례히 다른 사람들의 기탄없는 비평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이런 비평을 받고 그것을 受容하는 과정이 수없이 되풀이될 때 비로소 명저 내지 명논문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서평이 설 자리를 마련하고 또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는 自明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평을 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어떠한 필요한 분위기의 조성 노력과 서평을 쓰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노력의 결합으로 우리 사회에도 서평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도래했으면...

초점 2 서점의 문화적 기능과 전망/李重漢

4 책이 꽃힐 자리가 없다

독서의 현장 8 어린이 도서관의 「독서교실」

서재 24 사학자 李基白교수의 「道谷書室」

종합진단 10 우리 근대문학의 자료정리가 시급하다/ 권영민

11 影印本출판-자료개방과 정책적 지원이 과제

독서교육 14 앓을 들여다보는 독서/盧命完

인터뷰 16 한국근대문학연구에 집념 쏟는 金允植 교수

지금 독서중 6 朴淳敬의 「민족통일과 기독교」-시인 高靜熙
일선교사들의 「삶을 위한 문학교육」-교사 張東燦

지금 집필중 7 「經濟地理學」 집필하는 邢基柱교수

지금 제작중 7 AIDS예방 위한 해설서-汎洋社 출판부

출판화제 18 印章문화의 精華 「한국의 인장」외

19 역사의 의미 되새기는 「한길역사강좌」

세계의 출판 28 헤밍웨이의 神話 밝힌 새 伝記

포크싱어 존 바에즈의 자서전

폴란드 勞組지도자 바렌사의 자서전

29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목록

30 미국의 출판관계 정기간행물

저작권 통신 31 '유령筆者'에 의한 代作-저작자 사칭죄의 波長

종합서평 12 「한국고전비평연구」, 「한국漢詩의 이해」- 閔丙秀

서평 20 「日帝時代 貧民生活史研究」-許粹烈

「한국의 옛 造形意味」-趙英武

21 「민담형태론」-曹喜雄

「달궁」-金炳翼

22 「경제학의 새 潮流」-成百南

「俞吉濬伝」-柳永益

23 「韓國選拳論」-魚秀永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아이들」-金璟姬

독자서평 27 「時調詩話」, 「한국의 流民詩」

32 신간안내

45 신간목록

42 어린이책 들춰보기

40 출판계 움직임

41 읽기자료가 나온 모임

44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13 장마뒤의 책 간수

15 책 주변의 이야기

44 우리책방 단골손님

48 독서퍼즐